

# 미래의 사서

## - 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사서



정우섭  
위스콘신주립 밀워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  
wj8612@uwm.edu

### 들어가는 말

이제 열 두번의 <지상블로그> 글쓰기를 마치고 바톤을 다른 필자에게 넘길 때가 되었다니 1년이란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열 두 편의 글을 쓰는 동안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전혀 안면이 없는 분들에게 도서관 회의나 학회 등에서 지상블로그 이야기와 함께 인사를 받게 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다. 이제 필자에게 주어진 “시리즈”를 마치면서 다소 총론적인 이야기를 그간의 소회와 더불어 해야할 것 같다.

### 열받는 사서가 되자

지난 호 글에서 필자는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전공을 바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재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필자는 “순전히” 도서관에 열받아서 전공을 바꿨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대학교 때 외교학과 학부를 다니면서 대학 4학년 때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두 시험의 1차를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으나 그 기쁨도 잠시, 다음해 2차에서는 두 시험 모두 <국민윤리>라는 ‘시대착오적’ 과목에서 40점대의 점수를 받아 낙방을 했다. 그러나 시험에

매달리기는커녕 “내가 잘못된 것은 없고 다만 시험이 잘못됐다”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시 공부를 버리고 외교학과 대학원 공부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역사와 학문의 배경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논문주제를 “임오군란에 관한 문헌해제”를 선택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에서 발생하였다. 199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대학도서관들에는 책이 별로 없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갖고 있던 책들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교 도서관에는 옛 경성제국대학 시절에 모아놓은 책들이 따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석사과정에 있었던 필자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사과정 이상만 볼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아무래도 여기에 붙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열이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열은 아직도 받아 있다. 그 장서들은 고작 1930년대 전후로 출판된 것들인데, 미국 대학도서관들에서는 1800년대 책들은 모두 일반 서고에 개가식으로 놓여있음을 볼 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모교 도서관에서 외면을 당하고 국내 다른 도서관들을 찾아보기로 하고 나섰으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A도서관은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어렵사리 들어가서는 “불온문서서고”에 있었던 일본외교백서 영인본을 보다가, 서고 문을 열어준 담당 사서분이 윗사람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듣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상에 어떻게 일본외교백서가 “불온문서서고”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원본도 아닌 영인본을. 서고 문을 열어준 그 사서분께는 아직도 미안하지만 그런 분류 및 접근 규정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B대학교 도서관 이야기를 해 보자. 기관 간 협정에 의해 타 대학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다. 그래서 모교에서 의뢰서를 받아 B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빌리고 복사를 하려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책을 빌려주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다.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대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면서 돈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아직도 의아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왜 돈을 받았을까. 아무튼 필자가 열받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다.

그러던 차에 논문 자료 수집 차 일본어 공부 차 겸사겸사해서 일본 동경에 두어 달 가 있을 기회가 생겼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을 찾아 갔다. 카드 카탈로그(당시 일본국회도서관에는 OPAC 이 있었지만 일본어 입력이 필자에게 어려웠다.)에서 국내에서 찾을 수 없었던 자료들을 찾아 신청을 했다. 시간은 좀 걸렸으나 모든 신청 자료들이 나왔고 마음껏 볼 수 있고 복사 할 수 있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가서였을까? 그날의 그 기쁨은 아직도 필자의 가슴을 떨리게 한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 필자가 전공을 바꾸어 감히 “우리나라 도서관을 바꾸겠다”며 미국 유학길에 오른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 열을 받지 않았으면 필자와 도서관은 그리 큰 인연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12월 3일, 모교 대학도서관에서 관내 사서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란 말이 딱 맞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의 도서관들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여나 15년 전의 필자처럼 도서관에 대해 열받는 이용자가 있나 한번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사서 및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독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열받은 일에 대해 불평만 하며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만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불만일 것이고 그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에서 공부도 더 하게 되고 생각도 더 깊이 하게 되어 결국에는 본인의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도 해결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사서가 되자

지난 11월말, 필자에게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 위원장이신 한상완 교수님의 특강을 연거푸 이틀 동안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 충남대학교에서 있었던 한국기록관리학회 10주년 기념 특강과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0주년 기념 특강에서였다. 특히 전북대학교 특강에서 한상완 교수님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막대한의 정보가 누구나의 손에 쉽게 쥐어지는 기술의 발달 속에서 사서들이 정보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좋은 정보들을 속아주지 못한다면 사서들은 그들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정보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그리고 기존의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부가가치창출자로서의 사서 역할을 강조하셨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부분임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 끝에 필자는 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사서 역할을 감히 더하고 싶다.

이미 우리는 이용자 중심의 자료조직 및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면에서도 문헌정보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서관 및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남들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이트키퍼의 역할과 부가가치창출의 역할은 이미 우리가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새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고 이런 대응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보의 홍수, 손안에 모든 정보가 있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현실에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위치는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바, 필자는 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사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서들이 직접 장서의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사업 진행의 구조상 업체들에게 외주를 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마도 현장 사서들이 직접 작업을 담당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일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미국국회도서관이나 각 대학도서관들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사서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음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외부 업체들이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료 선정, 메타데이터 부여, 디지털 장서들의 운용 등등에 있어서 전문 사서들은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OPAC을 하버드 대학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컴퓨터공학과와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사서 역할은 역사가 꽤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미국국회도서관의 'American Memory' 프로젝트도 도서관 내 전문사서들의 도움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디지털화 작업이 기술적이라면 기계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사서들은 정보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평이 그것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객관적인 서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미디어 매체의 서평은 책의 광고 내지 홍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명 신문사나 인터넷 매체에 서평을 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출판계의 푸념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서평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서들이 책을 읽고 서평을 내주지 않으면 누가 이 부분을 담당할 것인가.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100년도 훨씬 넘게 《Booklist》라는 서평 잡지를 만들어오고 있다. 현재에는 1년에 22번 발간을 하는데, 연간 서평을 받는 책 등 자료의 숫자가 8천개가 넘는다. 한 호에 400개 가까운 서평을 수록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서평에는 서평을 한 사람의 실명이 들어가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요즘 트위터가 대세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일어났다고 트윗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잔다고 트윗하는 것이 일상이 된 정보전문가 내지 사서들이 많다고 들었다. 남들이 트윗한 것까지 챙겨 보려면 아마 하루가 모자랄 것이다. 물론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갈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에 들이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1주일에 책 한 권이라도 꼼꼼히 읽고 이에 대한 서평을 하나 써 주는 사서가 되기는 오히려

쉽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사서들이 직접 쓰는 서평은 분명 좋은 정보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정보 전문가들이 썼기 때문이다.

## 끊임없는 자기 개발에 충실하는 사서가 되자

얼마 전에 필자는 C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육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문헌정보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졸업인증제와 학과졸업인증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크게 고무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면서 필자는 현직에 있는 사서 분들을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지금 사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도 있고, 나이도 있고, 여러 면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야 한다. 자기 개발은 본인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자체 교육이나 외부 파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서 분들을 많이 보아 왔기에 이 자리를 빌어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은 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를 사서의 임무로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올해 전국도서관대회에 짧은 시간이나마 참석했는데, 2천7백명이 넘는 공식등록자 숫자에 크게 놀라며 양적인 성장은 분명히 달성했다고 생각했었다. 다만, 각 세션의 구성이나 세션 참석 사서들의 반응에서 미국도서관대회와 사뭇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현장 사서들의 연구발표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기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경청하는 모습에서 적지않은 아쉬움을 느꼈었다. 연구활동과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장이 일단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활동 및 결과 발표를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고 발표를 위해 출장을 가는 비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기관에서 일체 부담하는 전폭적인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려면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에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외국어 특히 영어에 관해 많은 사서들이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민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되묻고자 한다.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게 된다. 필자는 40대 초반이고 동년배 사서분들의 외국어에 대한 푸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이 은퇴를 할려면 20년 가까이 더 일해야 한다. 20년을 영어 공부한다면 영어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20대 후반의 초보 사서들은 말할 것도 없고, 30대 중견 사서들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 해야 하는데 이젠 늦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학원 같은 데 못 가는 분들은 필자가 7년 가까이 매일 인터넷에 올리는 영어 강의부터 들어보기를 권한다. <오마이리딩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고 공짜이긴 하지만 15분 내외의 고급독해 강의를 1,500개 가까이 올려놓았으니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공부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서이기 때문이다. 견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서가 따라가지 못하면 누가 따라갈 것인가.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해외연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서들의 해외연수는 “해외” 혹은 “국제”라는 이름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 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 보다 못한 나라의 도서관을 보고 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 IFLA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다녀오지만 어디서 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었던 IFLA에는 남아공 사람들조차 오지말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당시 안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과연 남아공 도서관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한편, 미국도서관협회의 연례회의에 다녀 온 사서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 회의는 등록참가자만 3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회의이고 수많은 사서들이 직접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또 수많은 회사들이 자사 제품들을 홍보하는 자리이므로 적어도 한 번은 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나은 도서관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을 가더라도 우리보다 나은 나라를 가 보기를 원하는 바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최근 재정압박으로 사서들의 해외연수 비용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다. 사서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는 더 늘면 늘어야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맺는 말

15년 전 유학을 떠날 때와 비교하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 그러나 우리 보다 상황이 나은 여러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정보를 정리·보존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소극적인 사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가려내고 부가가치를 창조하며 새로운 정보까지 생산해 내는 그리고

남에게 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만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수요 변화에 따른 사서의 정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떠나려고 하니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지는 주책을 부리려고 한다. 이쯤해서 마무리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변변치 못한 필자의 글들을 심도록 해주신 이은철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글을 그동안 열 두 편이나 읽어주신 독자들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

## 알림

《도서관문화》 2010년 1월호를 시작으로 '지상(紙上) 블로그' 코너를 집필해오시던 정우섭 교수의 글은 이번호로 끝마칩니다.  
그동안 좋은 글을 써주신 필자에게 감사드립니다.